

한중경제포럼

제11-03호 2011년 5월 4일

2011년 중국 "양회"의 주요 내용

2011년 제3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2011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
11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성과와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2. 일 시 : 2011. 3. 31 (목) 16:00~18:00
3. 발표자 : 거시경제연구원 린자오무(林兆木)

1. 중국 "11.5"계획의 집행 상황

- "11.5"계획의 성과와 경험을 총결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12.5"계획의 발전방향과 중점 항목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 견지·개선·강화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음.
- "11.5"기간은 대체적으로 2006~2007년과 2008~2010년 두 개 단계로 나뉨.
- 2006~2007년 사이 국제환경은 2003년~2007년 기간 세계경제와 무역의 번영기에 있었으며, 국내 환경은 마침 경제 상승주기에 있어 경제가 빠른 성장세를 보였음. 이 시기 중국의 주요 문제점은 경상항목과 국제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크고 국내의 수요가 불균형적이며, 국내투자와 소비가 불균형적이었음.
- 2008~2010년 기간에 국제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음. 즉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는

중국의 수출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충격을 가져다주었으며, 그 후 3년간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음. 또한 국내에 2008년 5월 12일의 원찬 특대지진, 2010년 4월 14일의 칭하이 위쑤 지진, 8월 7일 간수 저우취 산사태 등 일련의 극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음.

□ 중국의 "11.5"규획은 전반적으로 목표 완성현황이 양호하고 규획에서 확정한 8개 제약성 지표와 14개 예기성 지표 중 3가지 지표 이외의 모든 지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 "11.5"기간 연평균 GDP 성장률은 11.2%에 달하였고, 경제총량은 2005년의 세계 4위에서 2위로 부상하였음. 2010년 중국의 일인당 GDP는 4,000달러를 초과하여 세계은행의 구분기준에 따라 중국은 하·중등소득 국가에서 상·중등소득 국가 대열에 들어섰음.

- 5년간 누적 취업인수가 5,771만 명(규획의 요구는 4599만 명)에 달하였고 4,500만 명의 농업노동력을 이전시켰으며,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연평균 9.7% 증가하였고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소득이 8.9% 증가하여 규획에서 확정한 연평균 5%의 증가율을 초월하였음.

□ 예기성 지표 중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 서비스업의 취업비중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즉 규획에서는 5년간 누적치를 각각 3%p와 4%p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실제 2.5%p와 3.5%p만 향상시켜 각각 0.5%p 완성하지 못함.

- 목표 달성에 실패한 또 다른 예기성 지표는 R&D지출의 GDP 대비 비중인데, 규획에서는 2%이었지만, 실제 1.8% 완성하였음.

□ "11.5"규획에서 제출한 8가지 제약성 지표의 완성상황은 다음과 같음.

- ① GDP 단위당 에너지소모율을 20% 내외로 감소하는 목표를 거의 실현(실제 19.1% 감소)하였고 ② 이산화유황과 화학 산소요구량 배출총량을 각각 14.2%와 12.16%로 감소시켜 모두 10%의 목표치를 초과 완성하였으며, ③ 단위 공업증가액 용수량을 36.7%로 감소시켜 30%의 목표치를 초과 완성하였고, ④ 삼림 피복율이 20.36%에 달해 20%의 규획 목표치를 초과 완성하였음.

- 또한 ⑤ 2010년 전국 총인구수를 13.6억 명(실제 13.41억 명), ⑥ 1.2억 헥타르의 경작지 보유량(실제 1.212억 헥타르), ⑦ 도시 기본 양로보험 보급인수를 2.23억 명(실제 2.57억 명), ⑧ 신형 농촌 합작의료 보급률을 80% 이상(실제 96.3%)으로 확정한 목표치를 모두 초과 완성하였음.

□ 그 외 "양회"에서는 "11.5"기간 경제사회발전의 문제점도 제시하였음. 예컨대 발전 중 불균형, 부조화, 비지속가능의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짐.

- 그중 경제성장에 있어 자원과 환경의 제약이 심화되었고, 투자와 소비관계가 불균형적이며, 소득분배 격차가 크고 과학기술 혁신력이 약하며, 산업구조가 불합리하고 농업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며, 도시와 농촌 및 지역 간의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취업압력과 구조적 갈등이 병존하며, 과학적 발전의 체제와 메커니즘을 제약하는 요인이 여전히 비교적 많았음.

- 양질의 교육과 의료자원 총량의 결핍 및 분포 불균형, 물가상승 압력 증대, 일부 도시 부동산가격의 지나친 급등, 법률을 위반한 토지 징발과 철거 이주로 야기된 사회갈등 증가, 식품안전 문제가 뚜렷하며, 일부 영역의 부패현상이 심각함.

2. "12차 5개년" 계획의 목표와 정책 확정

□ "양회"에서 국무원이 편성한 "12차 5개년(2011~2015년)경제사회발전계획 강요"를 심사 통과시켰음.

□ 계획 강요는 "12.5"기간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 환경을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형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발전은 여전히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기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제환경에 있어, 세계다극화와 경제의 세계화 발전이 심화되고 평화·발전·협력은 여전히 시대조류임. 국제 금융위기 영향이 심원하고 세계경제 구조 조정이 가속화되며, 국제경제 관리 메커니즘이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며, 개도국 특히 신흥시장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상승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

- 국내환경에 있어, "12.5"시기는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관건시기이자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경제발전 방식 전환을 가속화하는 난관 극복 시기로서, 중국의 발전에 유리하며, 공업화·정보화·도시화·시장화·국제화 발전이 심화되고, 시장 수요 잠재력이 막대하고 자금공급이 충족하며, 과학기술과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노동력 자질이 향상되며, 인프라 시설이 날로 완비되고 정부의 거시조정과 중대 도전에 대한 대응력이 뚜렷하게 증강되며, 사회 전반 국면이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도록 추진

- 질적 성장과 효율적 성장을 토대로 연평균 7%의 성장률 유지를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성장 기대 목표로 확정함.
- 2010년 가격에 따라 추산하면 2015년의 GDP는 55조 위안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반 가격수준이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내수확대 전략을 계속하여 실시하며, 국내수요의 막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하여 소비·투자·수출이 조화롭게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패턴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경제구조 전환을 가속화함.

-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을 심화하며, 제조업을 개조하고 고도화하며,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함.
-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4%p 향상시키며,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화를 추진하여 도시화비율을 47.5%에서 51.5%로 향상시키며, 계속하여 인프라 시설을 강화하고 현대농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점차적으로 실현하고 도시와 농촌 및 지역 간의 양성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1차, 2차, 3차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함.

□ 사회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

- 교육을 우선 발전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전 인민의 교육수준을 점차 향상시키며, "자주혁신, 중점 비약, 지탱 발전, 미래 인도(自主創新, 重點跨越, 支撐發展, 引領未來)"의 방침을 견지함. 과학기술 혁신체제와 지원정책을 완비하며, GDP 대비 R&D지출 비중을 2.2%로 향상시키며, 과학기술 성과가 생산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촉진함.
- 현대화 건설 수요에 부응하고 인재육성을 강화하며, 높은 자질을 갖춘 인재를 대규모적으로 육성
- 문화건설을 강화하고 체육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의학 위생체제 개혁을 한층 심화하고 기본 의료위생 제도를 완비하며, 모든 인민이 기본 의료위생 서비스를 향유하는 목표를 실현함.
- 신형 사회관리 체제와 메커니즘을 창조하고 사회관리 법률, 체제, 능력건설을 강화하여 활력으로 넘치고 조화롭고 안정적인 사회를 확보함.

□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착실히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

- 자원절약과 관리를 강화하고 경작지 보호와 환경보호를 강화하며, 생태건설과 재해 방지·감소 시스템의 건설을 강화함.
- 비화석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1.4%로 향상시키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16%와 17%로 감소시키며,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을 8%~10%로 감소시키고 삼림면적을 6억m³ 증가하며, 21.66%의 삼림피복율을 확보함.
- 수리 인프라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대강의 중요한 지류와 호수 및 중소하천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며, 기본적인 농전관개와 물자원의 유효한 이용수준 및 홍수방지 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킴.

□ 인민생활을 전면적으로 개선함.

- 고용창출의 확대를 경제사회발전의 우선 목표로 삼아 5년간 도시 신규 취업인수를 4500만 명으

로 확보함.

- 주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 노동보수 증가와 노동생산물 향상을 동시 실현하고 주민소득이 국민 소득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제고하며, 노동보수가 1차 분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소득분배 패턴을 형성함.
- 도시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의 일인당 순소득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빈곤인수를 줄이며, 사회보장제도 완비를 가속화하고 보장수준을 한층 향상시킴.
- 도시와 농촌의 기본양로 및 기본 의료보장 제도의 전면적인 보급을 실현하고 도시와 농촌의 3가지 기본 의료보험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안정화하며, 정책 범위 내의 의료보험 기금 지불수준을 70%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전국 도시의 보장성주택 보급률을 20% 내외로 확정함.
- 계획출산이란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정책을 점차 완비하며, 인구의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일인당 예기 수명을 1세 연장시킴.

□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함.

- 경제체제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정치체제 개혁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문화체제와 사회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끊임없이 완비하며, 사회주의 민주를 확대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완비함.
- 법에 따라 각종 소유제 경제가 평등하게 생산수단을 사용하고 공정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며 동등한 법률보호를 받도록 체제 환경을 마련
- 재정과 조세 금융체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경제발전 방식 전환에 유리한 재정 및 조세체제를 적극 구축하며, 다원화 조직·고효율 서비스·신중한 감독관리·통제 가능한 리스크 등 특징을 가진 금융 시스템을 구축함.

- 자원형 제품 가격과 환경보호 비용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의 수급 관계와 자원 결핍정도 및 환경 손해 대가를 잘 나타내는 자원형 제품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함.
-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전략을 실시하고 국제협력과 경쟁에 참여하는 새로운 우위를 육성하며, 호혜 윈윈의 새로운 개방 패턴을 형성함.
- 총체적으로 향후 5년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의 종합국력이 한층 강화되고 인민생활이 크게 개선되며 국가 면모에 더욱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3. 2011년 경제사회발전 목표와 정책조치

- 2010년 중국의 GDP는 전년 동기대비 10.5% 성장하였고, CPI 상승률은 3.3%로 통제되고, 도시 신규 취업인수가 1,168만 명에 이르렀고, 국제수지 상황이 개선되어 2011년의 발전을 위해 양호한 토대를 마련하였음.
- 2011년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기대목표 다음과 같음.
 - 8% 내외의 GDP성장률을 실현하고 CPI상승률을 4%로 통제하며, 도시 신규 취업인구를 900만 명 이상으로 확보하고 도시 등록실업률을 4.6%로 통제하며, 국제수지 상황을 계속하여 개선하는 것임.
- 상술 목표를 실현하려면 거시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대응성·융통성·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과 경제구조 조정, 인플레이션 관리 3자 간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에 큰 파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함.
- 물가수준의 안정을 유지하고 이를 거시경제 조정의 최우선 임무로 삼아야 함.
- 2011년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주요원인은 ① 국제 석유와 식량 등 주요상품의 가

격 상승 ② 미국의 완화된 통화정책에 따른 수입성 인플레이션 요인 ③ 국내 원료와 인건비 상승 및 유동성 충족 등임.

- 인플레이션 억제에 유리한 요소는 중국의 공업품이 전반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크고 식량 재고가 풍부하며, 외환 보유고가 비교적 많은 것임.
- 가격상승세를 억제하려면, 경제와 법률 수단을 위주로 하고 필요한 행정수단을 채택하여 전면적으로 가격조정과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함.
- 시장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함.
- 2010년 말에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안정적인 통화정책으로 조정하였고 중앙은행은 지난 4/4분기 이래 이미 9차례에 걸쳐(2011년 3차례) 상업은행의 기준율을 인상 조정하여, 3월 25일부터 대형 금융기관과 중소형 금융기관의 기준율은 각각 20%와 16.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정부관리 상품과 서비스가격 조정의 시기, 리듬과 강약을 잘 파악해야 함.
- 생산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주요 농산품과 기본 생활필수품 및 중요 생산수단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해야 함.
- 농산품의 유통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의 저장량조정 시기를 잘 파악하며 수출입을 추진하고 시장의 조정력을 증강시켜야 함.
- 가격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질서를 지키며, 악의적인 조작이나 가격 인상 담합, 고의적인 가격상승 등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조사 처리해야 함.
- 보조 제도를 완비하고 사회구원과 보장 기준이 물가상승과 연결되는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계속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함.

- 2011년의 재정적자를 9,000억 위안으로 확정하였으며, 그중 중앙재정 적자가 7,000억 위안이고 계속하여 지방정부를 대리하여 2,000억 위안의 채권을 발행하며 이를 지방예산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 적자규모가 2010년보다 1,500억 위안 감소되고 적자비율이 GDP 대비2% 내외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지출 구조의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삼농"·미발달지역·민생·사회사업·구조조정·과학기술 혁신 등 중점 지출을 증가할 예정이다.
- 일반성 지출을 감소하고 당과 정부기관의 사무실 등 건축물의 건설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국(경) 경비와 차량 구입 및 운영비, 사무 접대비 등 지출은 원칙상 제로 증가 목표를 실현하며 계속하여 구조적 감세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함.

- 합리적인 사회용자 규모를 유지하고 광의 통화 증가목표치를 16%로 확정하며, 직접용자 비중을 향상시키고, 주식·채권·산업기금 등을 통해 다양한 용자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켜야 함.
- 신용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상업은행이 중점영역과 취약부분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며, 고소비·고오염 산업과 경쟁과잉 산업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통제함.
-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을 보다 더욱 완비하고 국경간의 자본이동을 감독 모니터링 하여 "핫머니"의 유입을 방지함.

□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함.

- 제조업을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함. 기업의 기술개조를 강화하고 신제품개발 능력과 브랜드 창출 능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며, 에너지와 자원의 종합 이용수준과 기술공법 시스템 집성수준을 향

상시키고 제품품질·기술함량·부가가치를 향상시킴.

-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신세대 정보기술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고성능 광대역 정보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삼망융합"을 가속화하며, 콘텐츠 네트워크의 시범작용을 촉진시킴.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신에너지,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업,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함.
- 서비스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생활성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고도화하며 장려류 서비스업의 전력, 용수, 가스, 열사용 가격과 공업 사용가격이 일치하도록 함.
- 현대에너지산업과 종합운송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전통 에너지의 청정적인 사용을 추진하며, 스마트 전력망 건설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킴. 편이, 안전, 경제, 고효율적인 종합 운송체계를 구축하고 해상운송과 육지운송을 전면적으로 계획하며, 해양경제 발전을 추진함.

□ 천방백계로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계속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함.

- 2011년 중앙재정 중 423억 위안을 빈곤부족과 고용창출 촉진에 투입하며, 노동집약형 산업과 서비스업, 소형·미형 기업과 혁신형 하이테크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문제를 최우선 위치에 놓고 직업기능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며, 자주적 창업을 장려함.

□ 소득분배 관계를 합리하게 조정함.

- 도시와 농촌의 저소득층의 기본수입을 향상시키고 직원의 최저임금, 기업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과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기준을 점차 향상시키며, 직원 임금의 정상적인 증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며, 최저임금 제도를 엄격히 집행함.
- 수입 분배 조정을 강화하고 개인소득세의 공제표준을 향상시키며,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

하여 중·저소득자의 조세부담을 확실히 경감시켜주며, 고소득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수입이 지나치게 높은 산업의 임금 총액과 임금수준에 대한 이중조정을 강화하며, 국유기업과 금융기관 고위층 인사에 대한 임금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함.

- 수입 분배 질서를 대대적으로 정돈하고 규범화하며 불법소득을 단속하고 수입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수입 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조속히 시정함.
- 각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점차 추진하며, 안정적인 노동관계가 있고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민공을 점차적으로 도시주민으로 전환시킴. 입적여건을 일시 구비하지 않은 농민공의 노동보수, 자녀들의 취학문제, 공공위생, 주택임대, 사회보장 등 측면의 실제문제를 해결함.

□ 도시와 농촌 주민에게 전면 보급되는 사회보장 체계 건설을 가속화함.

-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시범범위를 전국 40%의 현으로 확대하고 도시 주민의 양로보험시범을 추진하며, 집체기업 퇴직인원의 양로보장과 관련되는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퇴직인원의 기본 양로보험의 정상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함.
- 도시와 농촌의 최저보장 제도를 완비하고 사회보장 체계 완비에서의 상업보험의 역할을 발휘하며, 자선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킴.

□ 부동산시장 조정을 변함없이 견지함.

- 보장성 주택 건설규모를 한층 확대하고 2011년에 1000만 채의 보장성 주택과 판자촌 개조 주택을 건설하며, 150만 채 농촌의 위험한 주택을 개조할 예정임.
- 중점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발전시키고 중앙재정은 전년대비 265억 위안 증가된 1030억 위안의 보조금을 투입할 예정이며, 각급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를 대폭 증가시킬 예정임.

- 부동산시장 조정정책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완비하며 일부 도시 부동산가격의 급등 추세를 억제하며, 연도별 주택건설 계획을 작성하고 사회에 공포하며, 신규 건설용지 계획에 보장성 주택용지를 단독으로 열거함.
- 중소형 일반주택 건설을 중점적으로 증가시키고 주택임대 시장의 발전을 규범화하며, 차별화 주택대출과 조세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투기나 투자적인 주택구입을 효과적으로 억제함.
-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과 시장행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법률과 규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 심사 책임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며,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주택보장사업의 실시는 성급 인민정부에서 제반 책임지고 시현 인민정부에서 직접 책임지도록 하며, 순시·심사평가·상담 책임제를 완비함.

□ 의약 위생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함.

- 기층에서 전면적으로 국가 기본 약물제도를 실시하고 약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약품사용 안전을 확보하고 약품가격을 확실하게 인하 조정함.
- 공립병원의 시범 개혁을 잘 추진하고 각 지방의 병원 관리체제, 의료서비스 가격 형성 메커니즘과 감독관리 체제 등에 대해 대담하게 탐색하도록 장려함.
- 기본 의료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 직원과 주민의 의료보험 보급률과 신형 농촌합작의료 보급률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킴.
- 농촌의 3급 위생서비스 네트워크와 도시 아파트단지 위생서비스 기관의 건설임무를 완성함.
- 사회 자원을 활용해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사회자본과 외자의 의료기관 설립 진입범위를 확대함.

□ 문화건설을 대대적으로 강화함.

- 국민의 도덕건설과 성실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와 법률법규를 구축하며, 공공문화 제품의 공급과 서비스능력을 증강시키고 중서부지역과 도시와 농촌 기층의 문화 인프라시설 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함.
-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신형 문화산업을 육성하며, 문화산업이 국민경제의 중견산업으로 되도록 추진하고, 대중 체육과 경기체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킴.

□ 중점영역의 개혁 추진을 심화함.

- 국유금융자산, 비경영성 자산과 자연자원자산의 감독관리 체제를 완비하고 국외 국유자산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계속하여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장려·지원·유도함.
- 재력과 직권에 적합한 조세체제를 완비하고 예산관리제도 개혁을 완비하며, 국유자본 경영 예산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 기금 예산 편성을 시도하며, 금융시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금융혁신을 장려하며, 금리 시장화 개혁을 추진함.
- 국경 간 무역과 투자에서의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자본항목의 위안화 환전 업무를 추진하며, 제품유·천연가스 가격 형성 메커니즘과 각종 전기요금 확정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물 요금 개혁을 추진함.

□ 대외개방 수준을 한층 향상시킴.

- 구조 최적화와 효과 향상을 토대로 하여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함.
-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의 수출은 모두 계속하여 노동력자원 우위를 발휘하고 에너지와 자원소비를 감소하며, 고급 산업 체인으로 확장하고 품질, 수준, 부가가치를 향상시킴.

- 자체 브랜드 제품의 수출을 적극 확대하고 서비스무역과 서비스 아웃소싱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끊임없이 향상시킴.
- 수입과 수출을 함께 중시하고 선진기술 설비, 핵심 부품과 에너지 원료의 수입을 확대하며, 후발국과 주요 무역흑자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촉진하며, 무역 불균형상황을 점차 개선하고 무역마찰을 적절히 처리함.
-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외자 이용 방침을 견지하고 선진기술과 인재, 지적 자원의 도입을 중시하며,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R&D센터 구축을 장려하고 외자 이용의 제반 수준과 종합적 효과를 확실히 향상시킴. 또한 외상투자 산업목록의 수정을 가속화하고 외자가 하이테크,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현대서비스업 등 분야와 중서부지역으로 유입되도록 장려함.
- 대외외자와 외자이용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함. 기업이 적극적이고 질서 있게 다국적 경영을 전개 하도록 장려하고 대외투자의 거시적인 지도를 강화하며 투자촉진과 보호 체제를 완비하고 투자 리스크를 방지함.

첨부1:

11차 5개년 계획의 주요지표 완성 상황

지표	2005년	계획 목표		완성상황(%)		
		2010년	연평균 성장률(%)	2010년	연평균 성장률(%)	
GDP(조 위엔)	18.5		7.5	39.8	11.2	
일인당 GDP(위엔)	14185		6.6	29748	10.6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40.5		[3]	43	[2.5]	
서비스업 취업비중(%)	31.3		[4]	34.8	[3.5]	
R&D경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3	2	[0.7]	1.8	[0.5]	
도시(城鎮)화율(%)	43	47	[4]	47.5	[4.5]	
전국 총인구(만 명)	130756	136000	<8‰	134100	5.1‰	
GDP단위당 에너지 소모율 감소(%)			[20]내외		[19.1]	
단위 공업증가액 용수량 감소(%)			[30]		[36.7]	
농업 관개용수의 유효 이용계수	0.45	0.5	[0.05]	0.5	[0.05]	
공업고체폐기물 이용률(%)	55.8	60	[4.2]	69	[13.2]	
경작지 보유량(억 헥타르)	1.22	1.2	-0.3	1.212	-0.13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 감소(%)			이산화유황		[10]	[14.29]
			화학 산소요구량		[10]	[12.45]
삼림 피복률(%)	18.2	20	[1.8]	20.36	[2.16]	
국민 평균 교육 연도(년)	8.5	9	[0.5]	9	[0.5]	
도시(城鎮)기본양로보험 보급인수(억 명)	1.74	2.23	5.1	2.57	8.1	
신형농촌 합작의료 보급률(%)	23.5	>80	>[56.5]	96.3	[72.8]	
5년간 도시(城鎮)신규취업(만 명)			[4500]		[5771]	
5년간 농촌노동력 이전(만 명)			[4500]		[4500]	
도시(城鎮)등록 실업률(%)	4.2	5		4.1		
도시(城鎮)주민 일인당가처분소득(위엔)	10493		5	19109	9.7	
농촌주민 일인당 순소득(위엔)	3255		5	5919	8.9	

주: ① GDP,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은 당년 가격 기준으로 추산하고, 성장률은 불변 가격임.

② []는 5년간 누적치 임.

첨부2:

12차 5개년 계획 시기 경제사회발전의 주요 목표

지표	2010년	2015년	연평균 성장률(%)	속성
GDP(조 위엔)	39.8	55.8	7	예기성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43	47	[4]	예기성
도시(城鎮)화율(%)	47.5	51.5	[4]	예기성
9년 의무교육 보급률(%)	89.7	93	[3.3]	제약성
고등학교 취학비중(%)	82.5	87	[4.5]	예기성
R&D경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8	2.2	[0.4]	예기성
1만 명당 인구 발명특허 보유량(건)	1.7	3.3	[1.6]	예기성
경작지 보유량(억 무)	18.18	18.18	[0]	제약성
단위 공업 부가가치 용수량 감소(%)			[30]	제약성
농업 관개용수의 유효 이용계수	0.5	0.53	[0.03]	예기성
비석화에너지가 1차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8.3	11.4	[3.1]	제약성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 감소(%)			[16]	제약성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17]	제약성
화학 산소요구량			[8]	
주요오염물 배출 총량 감소	이산화유황 암모니아 질소산화물		[8] [10] [10]	제약성
삼림 증가	삼림피복률(%) 삼림면적(억m ²)	20.36 137	21.66 143	
도시(城鎮)주민 일인당 가처분소득(위엔)	19109	>26810	>7	예기성
농촌주민 일인당 순소득(위엔)	5919	>8310	>7	예기성
도시(城鎮)등록 실업률(%)	4.1	<5		예기성
도시(城鎮)신규취업(만 명)			[4500]	예기성
도시(城鎮)기본양로보험 보급인수(억 명)	2.57	3.57	[1]	제약성
도시와 농촌의 3가지 기본의료보험 보급률(%)			[3]	제약성
도시의 보장성 주택공사 건설(만 채)			[3600]	제약성
전국 총인구(만 명)	134100	<139000	<7.2‰	제약성
일인당 수명 예측(세)			[1]	예기성

주: ① GDP,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은 2010년 가격 기준으로 추산하고, 성장률은 불변 가격에 따라 추산함. ② []은 5년간 누적수치임. ③ 도시와 농촌의 3가지 기본 의료보험 보급률은 연말 도시 직원 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의 기본 의료보험과 신형 농촌합작의료 가입 인구총량이 연말 전국 인구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④ 도시와 농촌의 주민소득 증가는 GDP 기대 성장률보다 낮지 않은 기준으로 확정하였음. 수행 과정에서 경제성장과 동시적인 증가세를 확보해야 함.

첨부3:

12차 5개년 계획 중 민생개선 행동 계획

01	도시와 농촌 취업규모 확대: 도시와 읍 연 평균 900만 명 일자리 창출, 연 평균 농업노동력 이전 800만 명을 실현함. 기업 노동계약서 체결률이 90%에 이르도록 하며 집체(集体) 계약서 체결률이 80%에 이르도록 함.
02	최저임금기준 제고: 최저임금기준은 연 평균 13%이상 인상함. 대다수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이 현지 도시와 읍에서 종사하는 이들의 평균 임금의 40%이상이 되도록 함.
03	양로보험수준 제고: 도시와 읍의 근로자 기초양로금은 전국통합을 실현하며, 도시와 읍에서 1억 명이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도시와 읍 근로자의 기본양로보험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며 도시와 읍의 60세 이상 비취업 주민이 기초양로금 혜택을 받도록 함. 신형농촌사회 양로보험제도가 전 지역에서 실시되도록 하며 기초양로금 수준을 제고함.
04	의료보험수준 제고: 도시와 농촌 3개 항목 기본의료보험 가입자가 6,000만 명 이상이 되도록 함. 도시와 읍 주민의 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에 대한 재정보조금기준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며 정책범위 내의 의료보험기금 지불수준이 70% 이상이 되도록 함.
05	도시와 농촌 최저생계비 기준 제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연 평균 10% 이상 인상
06	농촌의 빈곤인수 감소: 빈곤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빈곤기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며, 빈곤인수를 감소시킴.
07	농민부담 경감: "12.5"기간 초반 개인소득세 임금·급여소득의 비용공제기준을 제고하고 개인소득세율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중·후반 종합과세와 분류과세가 상호 결합된 개인소득세제 제도를 건립하여 완전히 함.
08	도시와 읍 보장성 주거안정 프로젝트 실시: 도시와 읍 보장성 주택을 건설하고 판자촌 주택 3,600만 채를 개조하며, 전국 보장성 주택 보급률이 약 20%가 되도록 함. 토지양도 순수익이 보장성 주택 건설과 각종 판자촌 개조에 사용되는 비율이 최저 10%가 되도록 함.
09	취업과 사회보장 서비스체계 완비: 공공취업, 사회보험, 노동 감찰, 조정중재 등 서비스 시설 건설을 강화함. 사회보장 다기능카드(一卡通) 사용을 추진하고 전국 통일된 사회보장카드 발급 수량이 8억 장이 되도록 하여 보급률이 총 인구의 60%가 되도록 함.
10	국유자본 수익 중 민생지출 사용 확대: 국유자본수익 중 국가에 납부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자본수익 중 국가납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며 새로 증가된 부분은 사회보장 등 민생지출에 이용함.

<질의·응답>

질문 1.

“12.5”규획에서 평균 성장률을 7%로 확정하였고 2011년 경제 성장률을 8%로 확정하였음. 이는 “11.5”규획의 평균 11.2%와 작년 10.3%와 비교적 큰 차이가 있어 일부 외국학자들은 이러한 예기성 지표는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함.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변 1.

중국은 역사적으로 예기성 목표를 제시하는 습관이 있음. 하지만 이런 예기성 목표는 일반적으로 실제보다 모두 비교적 낮은 수준임. 예기성 목표는 주로 재정정책, 통화정책, 대외무역정책 등 거시정책을 위해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하지만 향후 5년간 국내외 환경이 다변하고 불확실성이 많기에 목표치를 높은 수준으로 확정할 경우 이에 상응하게 리스크도 상승하게 됨. 또한 중국은 과거부터 항상 목표치를 낮게 확정하여 일부 여지를 남겨두는 것을 관례임.

또한 이런 수치는 예기성 지표일 뿐이지 실제 완성할 수치가 아니며, 정부의 예측이자 지방에 대한 요구를 제시한 것에 불과함.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5년 규획의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확정할 때 중앙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정함. 그중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8% 이상으로 확정할 지방정부가 5~6개이고 10%나 12%로 확정할 지방정부가 5~6개이며 심지어 14.7%로 확정할 지방정부도 있음.

이는 지방정부가 국제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국의 전반 거시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의 고용창출 확대, 재정수입 증가, 지방의 면모 개선 등을 위해 맹목적인 성장률만 추구하기 때문임. 중앙정부에서 7%의 경제성장률 지표를 제시할 경우 지방정부는 일반적으로 9% 내외로 확정하고 중앙정부에서 9%로 확정할 경우 지방정부에서는 보통 15% 내외로 확정함.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성장률은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정하여 지방정부가 속도보다는 시장과 자금, 구조조정, 생태개선에 중점을 둔 질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질문 2.

한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잠재 성장률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음. 예를 들면 인구증가율, 노동력 증가율, 생산을 향상 등 지표를 근거로 하여 성장률을 예측하고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을 조정함. 중국은 어떠한가?

답변 2.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난 10년간 9~10%이었지만, 미래 수요와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하게 예견하기가 어려움. "12.5"기간 일부 잠재 성장률은 "11.5"지표를 초과할 것이고 자원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임. 또한 과거 수출의존으로 초래된 무역마찰, 과잉생산으로 초래된 수출상품 가격 하락 등 문제점도 수입 확대 등을 통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지난 10여 년간 중국은 줄곧 고성장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여 왔지만, 구조 불합리 문제가 한층 심화되었고 지나치게 외수와 투자에 의존하며 소비비중이 작은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따라서 현재 중국은 경제발전 방식전환을 토대로 한 경제성장률을 추구해야 바람직함.

질문 3.

최근 공포된 "12.5"규획에서 중국은 내수위주로 하는 경제발전 방식을 제안하였음.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그로스 가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같은 경우는 해당 비중이 60%에 달하는데 혹시 통계방법이 달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 또한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오면서 중국주민의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최초의 8배에서 현재는 이미 23배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가 있는가?

답변 3.

그로스 가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잘 모르지만 8%는 잘못된 수치라고 생각됨. 현재 중국에서도 점차 임금상승을 추진하고 최저 생활수준이 가능한 최저임금 수준을 점차 인상시키고 있으며, 최근 이미 20% 내외 수준으로 인상시켰음. 하지만 최저 임금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원가가 인상되고 궁극적으로 상품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 유의해야 함. 따라서 중기적으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그 인상폭

을 잘 파악해야 하며, 노동자와 기업 간의 협상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득격차 확대는 중국정부에서도 극히 중요시하는 문제점임. 내수확대를 촉진하려면 소득분배 개혁을 통해 국내 소비력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지나친 임금인상은 생산원가 상승을 초래하고 생산원가 상승은 궁극적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가 관건임. 중국은 국내시장이 커서 향후 내수위주로 하는 경제를 발전시킬 것임. 현재 기타 내수 대국과 비교할 경우 중국의 경제에 대한 내수기여도는 미국이나 인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이런 문제를 초래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소득격차의 확대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음.

질문 4.

중국은 지속성장의 경제성장률을 추구하는데 사실상 위험요인이 적지 않음.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의 채무가 급증하고 부동산 대출도 향후 3~4년 사이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가 있으신가?

답변 4.

개인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함. 첫째, 자원 환경이 주요 리스크가 될 수 있음. 자원 환경의 지속성과 환경오염 등 문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사회차원에서 최근 중동문제 등 사회갈등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자연요인으로 인한 재해도 적지 않음. 둘째,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해야 함. 셋째, 사회동란을 방지해야 함.

사실상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와 부동산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함. 중국정부는 줄곧 이에 대해 중시 해왔으며, 문제가 한층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정부는 적극적으로 부동산시장 조정을 추진하고 지방 용자에 대해 많이 중시하고 있음. 그 외 중국의 부동산시장 특징을 보면,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일시부로 구입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 부실대출을 초래할 리스크도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중국의 은행은 저축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상황임.

질문 5.

"12.5"규획에서 중국정부는 중점적으로 육성할 전략적 신흥 산업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상

당수가 한국의 신동력 산업과 겹치고 있음. 현재 한중 양국무역에서 한국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중점적인 산업발전이 겹치는 부분을 감안할 경우 한국기업에 대해 어떤 조언이 있으신가?

답변5.

전략적 신흥 산업은 산업의 다원화를 보여주었고 이런 산업이 현재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내외에 불과하여 중국시장에서 막대한 발전 전망이 있다고 생각함.

국제적인 산업 체인을 보면 과거 한국은 고급단계에 있고 중국은 저급단계에 있었는데 이는 양국 간의 협력에 일정한 기회를 제공하였음. 새로운 산업협력에 있어, 한국은 더욱 고급스러운 단계로 발전하고 중국도 한층 더 고도화되어서 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